

## 청 원 요 지 서

□ 청원명 : 이천시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반대 청원

○ 청원자

- 주소 : 부발읍 아미리 607 번지
- 성명 : 신 호 승

○ 청원취지

- 부발읍의 후보지인 아미리 산 75-3 지역부터 직선거리 2km 이내에 19,000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일일 상주인구는 그 배가 넘을 것이고 이천의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첨단산업체인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한 관계회사 및 세계গুল지의 식품회사 2곳이 가동 중임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 평가 항목 제14항 평균 운반거리는 경제적 손실을 염려한 대목으로서 시청을 중심으로 가까운곳부터 I, II, III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차후 운송비용을 적게하려 함으로 사료되나 이는 시청이 기점이 아닌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업체로부터 설정되어야 하며 제15항 토지취득과 관련 시청으로부터 가까운곳은 지가가 높고 멀수록 취득비용이 적게드는 것은 사실일지인데 이를 무지한 설정은 무의미 하다고 사료됨.


시설 설치 과업은 공정성, 과학성, 정확성, 참여성, 투명성에 원칙을 두고 선정한다 해놓고 주민대표를 선발함에 주민이 철저히 배제·무시 되었음.

이상과 같은 사유로 우리 부발읍민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주민이 참여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으로 정확한 기준을 재 설정하여 평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소개의원 성명 : 이 중 료 의원

○ 접수년월일 : '01. 11. 20.

### 청원 소개 의 건 서

청원건명	이천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사항		
청원인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무량읍 아미리 607번지	
	성명	신 호승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이 중 훈		
소개년월일			

#### 소개의견

이천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임지 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용역 의뢰한 연세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서 2001. 9. 13 일 발표한 19개 항목중 무량읍 주민이 이의제기한 8개항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무량읍 주민 1,836명 서명으로 평가항목 재설정 재평가를 요구한 청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1년 11월 20일

수신 이천시의회회장

제목 이천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반대청원

위의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청원서 3부. 끝.

청원자(대표)

주소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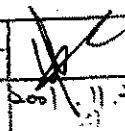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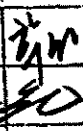

성명 : 신 호승 (인)

소개의원(대표) 이 총창 (인)

이천시 일반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입지 선정 반대에 관한

# 청 원 서

2001년 11월 10일

의 장		결재	주 장	
접수인시	2001. 11. 10	(공란)	의20장	
처리과			의사결정	

부 발 읍 민 일 동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성공리에 이루어 내시고 문화의도시 일등의 도능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이천시민을 대표하여 활동하시는 이천시 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어느곳이든 선정되어야 함에 있어 지역 이기주의와 불필요한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에 관한 문제는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민주적으로 설정되어 그에 합당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추진 주체의 명분도 있고 해당지역의 반대도 약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발 주민들은 금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적합지를 설정하는 과정과 19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점이있어 청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향권내의 주거인구 분포 및 정온시설과 진입로 거리 운반거리 토지가격등의 중요도는 같을수 없습니다.

시설 설치후 인간의 건강과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항과 작은 비용의 추가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같은 비중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역 특정상 형평성이 결여 되었습니다.

부발읍은 이미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2곳이 있으며 군부대 사격장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가중되어 왔으며 신영축산(도축장)으로 20여년간 악취·지하수오염·해충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지역으로서 또 다시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지역 피해가 야기된다면 특정지역으로의 혐오시설 집중으로 지역의 등등한 발전을 기대하는 시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51회 제2차정례회 -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상 상류입지 여부에 상류는 Ⅲ등급 하류는 I 등급으로 정함에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이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상·하류로 구분한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남한강이 기준이라면 이천시 전지역이 보호구역이지 I, II, III급의 의미가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넷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지하수의 오염, 대기오염 및 다이옥신의 피해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평가항목 제8항은 무슨이유로 설정되어 등급을 정하는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시 해야 할 후보지 부터의 주거인구 및 필요시설과의 이격거리입니다. 부발읍의 후보지인 아미1리 산 75-3 지역부터 직선거리 2km이내에 19,000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일일 상주인구는 그 배가 넘을것이고 이천의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첨단산업체인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한 관계회사 및 세계굴지의 식품회사 2곳이 가동 중임에도 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섯째 평가 항목 제14항 평균 운반거리는 경제적 손실을 염려한 대목으로서 시청을 중심으로 가까운곳부터 I, II, III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차후 운송비용을 적게하러 함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시청이 기점이 아닌 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업체로 부터 설정되어야 하며 제15항 토지 취득과 관련 시청으로 부터 가까운곳은 지가가 높고 멀수록 취득비용이 적게드는 것은 사실일지인데 이를 무시한 설정은 무의미 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째 모든 항목의 이격거리를 정함에 있어 처리 시설 중심점 부터 계산이 되어선 안되며 시설이 차지하는 총면적의 가변에서 실측이 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시설 설치 과업은 공정성, 과학성, 정확성, 참여성, 투명성에 원칙을 두고 선정한다 해놓고 주민대표를 선발함에 주민이 철저히 배제·무시 되었으며 공정하고 정확한 선정이 이루어 졌다고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우리 부발읍민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으로 정확한 기준을 재 설정하여 평가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이같은 우리의 의사가 무시된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계속 추진 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하고 엄청난 대응이 자율적으로 있을 것임을 밝히면서 민주적이고 자율적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재설정 재평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